

안 좋으니까營業을 안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營業을 못 하게 되고 앞에 무등극장 쪽으로 나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네 名 정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기타」도 치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앞으로 나갔었거든요. 앞으로 나가서 無等劇場 정도... 앞으로 나가니까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그 당시 空輸部隊들이 진압봉하고 칼하고 양 쪽으로 들고 보는 사람마다 진압봉으로 치면서 우리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는 無等劇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無等劇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저하고... 사실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있음니다마는 그 안쪽으로 도망가는데 사실 도망간다는 것이 잘못 도망가서 戰警隊 애들이... 우리가 道廳 있는 방향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戰警들이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밤이 캄캄하니까 그 안으로 앞이 안 보이니까 멋도 모르고 계속 앞도 안 쳐다보고 그냥 달려갔었는데 앞에서 무엇이 옷을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戰警隊 소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니까 示威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도망간다고 간 곳이 호랑이 굴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그 기억은 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당시 空輸部隊의 복장은 어떠한니까?

○證人 李載春 空輸部隊 복장은 얼룩이...

○吳景義委員 그러면 잡아간 사람들도 얼룩무늬가 잡아갔습니까?

○證人 李載春 아니요. 뛰어올 때도 얼룩무늬였어요. 잡으러 올 때도요.

○吳景義委員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잡아가서는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帶劍으로 찌른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證人 李載春 그 당시 현장에서는 안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잡혀 들어가니까 분수대 앞에서 저하고 같이 들어서 잡힌 사람하고 같이 못 박고 손들고 있었어요.

○吳景義委員 연행 당시의 경위와 연행된 뒤에 목격한 사실이라든지 또 본인이 어떻게 당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證人 李載春 제가 잡혀서 분수대 입구에 있을 때 거기서 못박고 손들고 있을 때 戒嚴軍 두세 名 정도가 와서 고개를 땅으로 쳐박으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쳐박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나 허리를 위에 올라가서 막 짓밟아 버리고 완전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번 맞고 이렇게 하는데 戰警들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을 수갑을 채우더만요. 그래서 道廳 안을 들어가는데 道廳 안에 뒤에만큼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막 제가 잡혀갔을 때는 35名에서 40名 정도가 전부 다 엮드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같이 엮지라고 하대요.

그래서 엮어서 제가 보니까 空輸部隊員들이 한 사람 잡아올 때마다 거기서 자기들 기분파를 다 하는 것이예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고개 들면 와서 밟아 버리고 또 조금만 「히프」라든지 조금 들고 있으면 진압봉으로 와서 때려 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證인도 拷問을 당하고 어디 맞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證人 李載春 예. 고개 한 번 들다가... 막 잡혀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전에 그랬읍니다마는 그때 軍인들이 撤收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쪽 내미니까 어디서 때리는지 모르게 와 버렸어요. 제가 그때 머리를 진압봉으로 맞았거든요.

○吳景義委員 그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조금 휘황해졌다... 머리 어느 부분인가요?

○證人 李載春 이쪽입니다.

○吳景義委員 머리 위를 맞았다... 그래서 정신이 휘황해졌다...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다른 現場을 본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證人 李載春 그렇지요. 저는 示威도 가담 않고 당시 示威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사실 저같은 경우는 防衛兵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도 했었어요 진짜 밥 먹고 할일 없으니까 學生들 맨날 「데모」나 하고 그런다고 육까지

했었거든요.

○吳景義委員 學生들 「데모」한다고 나무라고 그랬다...

○證人 李載春 예. 우리는 사실 그런示威過程같은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까지 하고 그랬는데示威 구경하고 있다가 옆에서 보니까 반응들이 안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防衛服을 입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吳景義委員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데모」하는 學生들 말하자면示威 군중들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또 타이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혀 가담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호랑이 굴로 뛰어 들어 갔다가 얻어 맞아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 이런結論이지요? 지금까지 얘기는...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바로 잡혀갔을 것인데 避身을 했어요? 누가 도와서 같이 避身하게 되었습니까?

○證人 李載春 그 당시 아침 10時 넘어서 市民들하고 그때 당시 市長하고 무슨 합의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우리들도 나간다고 뒤에 어떤 警察官 한 명이 오셔서 그러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12時 조금 넘어서 보니까 空輸部隊들이 撤收를 하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보통 「헬」機 같은 게 자주 뜨고 오르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을 「헬」機에 실고 간다고 그러더군요.

○吳景義委員 그런데 어떻게 「헬」機에 안 실려 갔어요?

○證人 李載春 그때 당시 軍人들이 상황이 임박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까지 데리고 撤收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吳景義委員 그러니까 撤收하면서 「헬」機에 실고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그러면 거기서 낙오된거요 아니면 누가 구해준 거요?

○證人 李載春 그때 당시 警察되신 분들이 道廳 바로 뒤에 담 옆에 벽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딱 미니까 문처럼 나가더군요.

요. 그래서 남의 가정집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警察이 구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는 모면해 가지고 「헬」機에는 안 타고 갔다는 얘지요?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그렇다면 5月23일부터 26일까지示威隊의 狀況室 대기조로 활동하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던가요?

○證人 李載春 예. 조금 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데 한 일은 무엇을 했어요. 任務가 뭐였어요.

○證人 李載春 시체같은 것을 옮기고 또 市民들이 여기에 먹을 것을 준비해 뒀으니까 빨리와서 가져가라 이런 電話같은 것 오고 그러면 우리 車가 나가서 같이 가서 빵같은 것이나 음료수같은 것을 道廳안으로 실어나르고 그랬습니다.

○吳景義委員 現地에서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하는 任務을 맡아 했었다...

그 다음 空輸部隊가 道廳에 進入한 5月27日 알지요?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證人 李載春 大體的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날 道廳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었다고 들었는데...

○證人 李載春 아침 해 뜰때까지 있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證人 李載春 거기에 있으면서 한 일은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6日 市内를 돌아다니면서 油印物같은 것을 봤어요. 오늘 전부다 道廳에 들어온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油印物 내용도 있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압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순간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양동남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대요. 오늘 전차로 戒嚴軍이 들어올까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서 사실 내가 집에를 갈 용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고르게 집에 갈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저갈

은 경우는 防衛兵 신분이기 때문에 만일 걸리면 銃殺이다 하는 것을 제가 대충 느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놔두고 그대로 도망가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도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 사람들 놔두고 도망가면 제가 男子로서 배반하는 것도 같고 도저히 이 사람들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 양심에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2時 넘어서 市内 全 地域이나 이런 銃실학교 있는데 芳林洞 楊林洞 기독교병원 이런 데에 순찰을 돌아보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도 그래서 道廳舍로 돌아와 가지고 잠시 대기하고 있었어요.

○吳景義委員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어떤 義俠心이나 義理 그런 것 때문에 現場에서 갖은 일을 하면서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고 道廳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나중에 道廳에서 체포가 됐지요?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체포돼서 어디로 연행당해 갔습니까?

○證人 李載春 그 당시 막 잡혀갈 때는 어느 方向으로 가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車에 막 실려가지고 밖을 전혀 보지 못한 채 車 의자에서 머리를 숙이고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저기서 이틀후에 여기가 尙武臺 30「피」營倉이라는 것을 제가 이틀후에나 알았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尙武臺 營倉으로 붙잡혀 갔다 그래서 붙잡혀 가서 證人은 신분이 防衛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잡히면 銃殺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防衛兵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拷問을 당한다든지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證人 李載春 예. 증거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저기가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證人 李載春 아무튼 搜查를 받는 과정에서 옆에 搜查官들이나 지나가다가 오면 防衛놈이 「테모」했어. 가면서 발로 한번 이 사람이 와서 발로 한번 하다 못해 兵들까지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간 일이 있는데 차라리 앞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데서 때렸으면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하겠는데 뒤에서 때리니까 이것은 여기서

죽인다나...

○吳景義委員 때리기는 필로 때리든가요?

○證人 李載春 손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軍靴발로 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곡괭이자루같은 것 이만한 경봉같은 것 그런 것 가지고 앞에서 때렸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자꾸 때리니까 안보이니까 더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吳景義委員 많이 맞아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證人은 裁判을 받았습니까?

○證人 李載春 裁判을 받았습니다.

○吳景義委員 裁判받은 結果가 12年刑 宣告를 받고 1년이 덜 복어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왔는지는 알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載春 5月27日 아침 7時頃 잡혀서 81年3月3日 大統領特赦로 나왔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당시 全斗煥入統領當選 特赦로 나온 것이예요?

○證人 李載春 就任式때...

○吳景義委員 그래가지고 12年刑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 罪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풀려나온 것이구만요?

○證人 李載春 예.

○吳景義委員 그때 裁判은 軍인들이 하던가요?

○證人 李載春 軍인들이 했었는데 우리 마을대로 裁判場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두명 걸러 한명씩 銃을 무장한 상대로 裁判을 받았읍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그때 裁判을 받았었는데 罪名이 뭔데 12年刑을 받았습니까? 기억이 나요?

○證人 李載春 이것은 제가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자식이 들입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자식한테도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제가 한번 내자식에게 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애가 성장해서 어느정도 20歲가량 되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罪名은 지금 公開하면 안되는 것이예요?

○證人 李載春 하겠습니까. 사실 그당시 內亂實行 하고 勤務離脫 다음에 銃砲火藥管理法 違反 111條 112條 그리고 뒤에 무슨 條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섯 일곱가지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사실 裁判받고 들어오기 전에 內亂이 뭐인지도 몰랐습니다. 檢事가 불러서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內亂이라고 해서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나 하고 營倉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당시 敎授님도 계시고 學生들도 있기에 內亂이 뭐요 하니까 內亂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內亂에 대해서는 政府를 없으려고 하고 現政府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없어서 무슨 자리 하나씩 해먹으려고 그런 것이라고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吳景蕘委員 그런데 內亂罪가 뭔지 모르고 罪名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12年을 받았다가 나중에 罪名 自體가 무고하다고 해서 이렇게 풀려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出所한 후에 건강은 어떻습니까?

○證人 李載春 지금 사실 제가 滿 30歲입니다마는 남의 집에 손님으로 못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같은 경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 同志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허리같은 것 다리같은 것 관절 이런 것이 무지 심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도 거의다 80年이후는 버릇이 되어가지고 다리를 뺏어야 되고 아니면 기울여서 앉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집은 못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吳景蕘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職業이 있습니까?

○證人 李載春 지금 현재 계속 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吳景蕘委員 일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당초에는 防衛兵으로서. 夜間業所에서 司會者를 했는데 夜間業所의 司會者를 하려면 말도 잘 해야 되고 또 남보다 「리더 쉽」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같습니다. 사실 많은 고생을 해왔고 또 李載春證人 같은 분들이 빨리 한맺힌 설움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좋은 앞날이 기약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정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또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오늘 밤늦도록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尹在基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30分이 되겠습니다.

○尹在基委員 新民主共和黨의 尹在基委員입니다.

尹錫禧씨는 원래 5·18光州抗爭에 참여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證人 尹錫禧 집에서 가내로 자개농같은 것을 화장대 그런 것을 경영했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러면 5月17日 이전에 光州에서 일어난 그 시위나 民主市民들이 한 戒嚴解除示威같은 것에는 참여하지 않았나요?

○證人 尹錫禧 17日 초반기에는 제가 별 참여를 안 했지요.

○尹在基委員 光州民主化運動의 抗爭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證人 尹錫禧 제가 사실 「대모」하고는 원래 거리가 멀었고 사실 學生들이 모여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힌다든지 그럴 때에는 오히려 저도 성질도 내고 그러지 안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5月17日이후 제가 5月18日 인척집을 다녀오는데 느닷없이 보통 그때는 通禁이 12時頃이었는데 6時나 7時頃에 제가 충장로파출소앞에서 잡혔습니다. 通禁이 몇時인데 아직까지 돌아다니느냐 그래서 12時가 通禁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내 옷에서 냄새를 맡더니 催淚彈냄새가 난다고 그냥 거기서 많이 맞았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래서 이유없이 空輸部隊員에게 맞고 그 空輸部隊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군요?

○證人 尹錫禧 당연하지요.

○尹在基委員 그래서 그 이후에 空輸部隊의

여러가지 소행을 목격하고 屍身도 목격하고 그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弱者의 면에서는 그런 正義感에 따라서 光州民主化抗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證人 尹錫禧 그렇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래서 5月25日 證人은 道廳에서 空輸部隊가 光州市에서 철수를 한 후에 光州市民이 自體의 질서정리를 위해서 武器를 반납하자는 운동이 있었을 때 武器回收를 反對했는데 그 反對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尹錫禧 아까 앞에서 다른 同志들이 말씀했지만 그때 사실 일은 이미 엄청나게 市民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보장없이 그때 당시 市民들이 요구했던 事項들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武器를 다시 거두어서 준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하루에도 數萬名씩 市民들이 道廳앞에 모였는데 절대로 武器를 회수하지 말고 죽어가고 다친 이 光州市民들을 위해서 우리가 武器를 절대 반납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同僚의 피가 헛되게 하지 말자고 한 그런 輿論들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리고 本人 생각도 거기에 투쟁하려고 나왔지 武器 거두워서 갖다 바치려고 제가 나간 것도 아닙니다.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證人の 입장에서는 당초 示威에 참여하지도 않고 명백하게 장사일을 하는 市民이었는데 이 空輸部隊의 蠻行에 분개해 가지고 民主化抗爭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많은 光州市民이 空輸部隊의 謝過를 받고 또 선량한 市民을 射殺한데 대한 政府側의 謝過를 받고 武器를 놓자 하는 그런 強硬派에 속했군요?

○證人 尹錫禧 그렇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런데 證人은 武器를 들었다고 그래서 당시 戒嚴司에서는 證人과 같은 사람들을 전부 暴徒로 몰아 세웠지요?

○證人 尹錫禧 예.

○尹在基委員 그러니까 證人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武器를 들고 강경하게 대처했는데 그것은 명분을 위해서 光州市民民主化運動의 명분을 위해서 政府側 謝過를 받자는 것이었지 市內秩序를 혼란하게 한다든지 또 戒嚴軍에게 총을 쏘아서 상대방을 승복하게 할 뜻은 아니었지요?

○證人 尹錫禧 그렇지요.

○尹在基委員 그래서 證人은 가령 銃싸움이 市民軍하고 戒嚴軍하고 벌어졌을 때 證人은 당연히 市民軍이 힘에 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銃을 계속 잡기를 바랬던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무모한 죽음을 택했습니까?

○證人 尹錫禧 거기에 대해서는 委員님의 말씀대로 싸움은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이 피를 보고 물론 交通事故가 나서 흘린 피라면 더럽고 추잡해서 피하겠지만 그때 당시 光州市民들이 그야말로 선량한 市民들이 흘린 피는 제가 볼 때 더러운 피가 아니라 받아 먹어도 시원할 정도의 피였습니다.

○尹在基委員 民主化를 위한 抗爭에 獻血로 바친 피였기 때문에 고귀하게 생각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게 되었다 그 얘기지요?

○證人 尹錫禧 그렇지요.

○尹在基委員 그런데 證人이 그 후에 체포되어 가지고 保安司合搜部の 調査를 받고 당시 內亂陰謀罪로 물렸지요?

○證人 尹錫禧 예.

○尹在基委員 그래서 그 公訴狀을 보니까 證人은 戒嚴軍이 들어가던 27日 새벽 2時30分쯤 市民軍 및 기동타격대에게 최후의 1人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道廳을 死守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尹錫禧 사실입니다.

○尹在基委員 것처럼 道廳을 死守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랬습니까?

○證人 尹錫禧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소신이 있게 그때 學生이나 또 在野人士들 또 많은 市民들 光州市民들이 다 바랬습니다.

몇 가지의 拘束人士釋放이라든지 戒嚴解除라든지 政治日程 短縮이라든지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될 때까지는 하여튼 최후의 한사람이 남더라도 전부다 전멸을 하든 아뭏든 될 때까지는 꼭 死守를 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隊員들한테 물론 죽은 사람도 많습니까라는 그렇게 發砲 命을 내린 것입니다.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그 간 5月18일부터 27일까지 光州民主化運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많은 영령들과 光州市民의 民主化運動에 대한 그 정신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戒嚴解除 및 政治日程短縮 또 당시 체포되었던 金大中씨 釋放 이런 요구를 관철하면서 최후의 목숨을 걸었던 抗爭이었군요?

○證人 尹錫禧 그렇습니다.

○尹在基委員 지난번 聽聞會에서 임수원證人이라고 당시 3空輸 11大隊長이 道廳 앞 鎮壓部隊였는데 證言을 통해서 尹錫禧證人이 임수원 大領을 向해서 2·3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證言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尹錫禧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道廳 鎮壓 당시 거의 다 鎮壓이 되었을 때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때였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李載春同志와 저와 또 제 部隊長으로 있는 이재오同志 全大生 한 사람 네명이 「버스」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동이트자 「버스」 사이로 보니까 우리 동료들이 전부 머리를 아스팔트위에 대고 그 위로 군화발로 짓이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도저히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다 바로 戒嚴軍과 제가 은신하고 있는 「버스」 하고는 불과 10m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 同志들이 수류탄으로 자폭도 제의를 했었지만 그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차피 나가서 잡혀 죽으나 여기에서 총을 쏘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 권총으로 空輸部隊 제일 指揮者格으로 보이는 임수원大領에게 총을 두세 발 쏩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證人은 임수원 戒嚴軍에 대해서 사살할 목적으로 쏘았습니까 위협적인 생각에서 쏘았습니까?

○證人 尹錫禧 사살할 목적으로 쏘았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런데 맞지 않았습니까?

○證人 尹錫禧 맞지 않았습니다.

○尹在基委員 證人은 民主化運動을 부르짖으면서 상대방 더군다나 國軍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禧 그렇지 않습니다.

國軍이 國民을 지켜야 하고 國民을 지킬

때에만 國民으로부터 신뢰받는 國軍이지 國軍이 市民들이나 國民들을 죽이는데 그것도 존경해야 됩니까?

○尹在基委員 證人!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英國의 잠언중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戒嚴空輸部隊가 아까 송기숙證人이 이야기한 것처럼 戰爭을 하는데에 사용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軍隊입니다. 證人은 그 空輸部隊의 個人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禧 감정이 많이 있지요.

○尹在基委員 그 사람들이 때린 것 市民을 구타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이 있지만 그렇게 때리게 된 배경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린 것이 아니고 上部의 지시에 따라서 市民을 鎮壓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까?

○證人 尹錫禧 그렇지요.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비유를 들어볼 때 스페인의 투우하고 비유를 해 봅시다. 길들여진 투우가 투우사를 향해서 생각없이 條件反射의으로 돌진해 오는 투우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높이 그 투우로하여금 투우사를 공격하게끔 만들었던 新政治 軍部勢力들이 문제를 야기 시켰었는데 根本原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禧 맞습니다.

○尹在基委員 지금 이제껏 證人은 계속된 光州特委聽聞會를 보아 왔지요?

○證人 尹錫禧 간간히 볼 때도 있었고 안 볼 때도 있었습니다.

○尹在基委員 지금 보면서 光州의 戒嚴軍들이 무차별하게 市民을 학살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구타했던 것도 여실히 다 드러났지요?

○證人 尹錫禧 냈지요.

○尹在基委員 그 배후가 당시 5·17 戒嚴을 확대하고 政治軍인들이 政治權力을 잡기 위해서 일으켰던 空輸部隊를 보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지요?

○證人 尹錫禧 느낄 수도 있고 인정 할 수 있습니다.

○尹在基委員 당시 戒嚴을 해제하지 않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戒嚴軍을 여하튼 光州에

과견하게 했고 空輸部隊을 光州에 파견하게 했던 實權者 全斗煥씨나 崔圭夏씨에 대한 책임이 最終적으로 있다고 證人도 생각하지요.

○證人 尹錫禧 예.

○尹在基委員 지난 번 全斗煥씨는 百潭寺에서 모든 사실을 間接적으로 자백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證人 尹錫禧 알고 있지요?

○尹在基委員 全斗煥씨는 政治的인 과욕때문에 자기가 여러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光州市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 불공을 드리고 싶다는 것을 新聞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禧 못 보았습니다.

○尹在基委員 당시 崔圭夏大統領이 政治日程을 단축하지 않고 民主化計劃을 빨리 政治日程을 공표하지 않았던 崔圭夏大統領의 책임 또한 자기 개인의 욕심이 있었는지 軍의 壓力을 받아서 했든지간에 崔圭夏씨의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禧 마땅합니다.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證人은 당시 무고하게 政治的인 소신보다는 光州市民의 울분을 대변하는 하나의 24歲된 청년으로서 機動隊長까지 하고 機動隊까지 조직했다가 無期懲役까지 받았던 적이 있지요?

○證人 尹錫禧 있습니다.

○尹在基委員 그 이후 몇 년만에 나왔습니까?

○證人 尹錫禧 그 이후 5月27日 새벽에 道廳에서 박남선동지와 지금 현재 議員이 되었습니다마는 鄭祥容議員 등등과 같이 잡혀서 82年12月23日 大統領特赦로 나왔으니까 約 2年 9個月 10몇일 되겠습니다.

○尹在基委員 證人の 罪名에 보면 內亂罪와 특히 合搜部 김성식 搜查官은 市民軍으로 光州市民에 가장하고 잠입해서 證人の 機動打擊隊와 交戰까지 벌였던 사실이 있었고 또 同人은 證人이 체포되자 證人을 간첩으로 몰려고 하는 의도까지 있었고 이해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證人을 內亂罪로 해서 無期懲役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것처럼 內亂을 기도했던 사람은 2年만에 석방됐지요?

○證人 尹錫禧 2年이 넘지요.

○尹在基委員 그것만 보아도 證人을 죄인으로 몰았던 자체가 스스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입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각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이제껏 光州事態의 구체적인 發砲責任者가 末端部隊의 隊長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聽聞會에서 그 사람들의 失策까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戒嚴當局者들을 전부 部隊要員이나 大隊長들을 불러서 물어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光州抗爭에 있어서는 어떤면에서는 加害者이고 또 證人들은 被害者인데 加害者인 마땅히 搜查를 시작한다면 被害者와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 본다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光州事態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려면 野2黨이 주장했던 特別檢事制를 동원해서 이 모든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證人은 그 見解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禧 特別檢事制 問題에 대해서 전적으로 同意합니다. 委員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尹在基委員 지금까지 光州聽聞會에서 밝혀진 여러가지 사실에 의하면 現 執權黨과 또 盧泰愚大統領 입장에서 이 光州事態를 야기했던 모든 責任者를 처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禧 당분간은 처벌이 어렵겠지만 國民들의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또 자기 政權마저 위협을 느낀다면 全斗煥씨도 못잡아 넣을 것이 없지 않습니다.

○尹在基委員 이런 政治的인 事件의 해결방법에 대해 몇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 이것은 政治的인 原理로 與野가 타협해서 이 사건을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證人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같은 5共和國이 결국 6共和國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自己革命的인 原理로 市民의 運動이라든지 어떤 4·19와 같은 學生運動을 통해서 이 政府를 전복해 가지고 새로이 執權을 해서 상대방을 調査하는 革命的인 原理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民正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中間評價와 같은 民主的인 節次의 原理에 의한 어떤 이 政權의 退進을 요구하고 그리고 搜查를 한다든지 이러한 세가지

原理方法중에 證人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政治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가장 國民을 위하고 또 國家를 위하고 모든 光州市民을 위하고 여러가지 綜合的으로 생각해서 어떤 原理를 擇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禧 글씨... 세가지 부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專門인 政治人이 아니고...그러나 제 私見으로는 많은 피나 어떠한 것을 흘리면서 하는 것 보다는 盧總載께서 좀 反省을 한다는 뜻에서 피를 안흘리고 세가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盧大統領께서 어떤 物理的인 방법도 動員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催淚彈 쏘아서 學生들 市民들 굳이 制壓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자기가 市民들이 要求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쏠 斗換せ러 최소한도 拘束을 못 시킬망정 솔직히... 여기에 나와서 僞證을 할망정 발뺌을 할망정 여기에 나와서 앉히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여튼 光州問題가 어떤 형식으로든 糾明이 되어야지 하여튼 中間評價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마는 真相糾明은 꼭 해야 됩니다.

○尹在基委員 물론 歷史속에서 真相糾明은 될 테고 또 真相糾明하는 때가 올 것 입니다. 그러나 現時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光州事態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가사 아까 원천적인 원리에 의하면 新軍部勢力이 武力과 또 革命的 원리에 의해서 革命도 아닌 어떤 空輸部隊의 투입을 하고 政權을 찬탈한 원리에 의한 세력들이 다시 이 歷史에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난 大統領選舉에 투표를 통해서 大統領을 선임했습니다.

따라서 이순간 우리가 市民運動을 통한 새로운 革命的 원리를 가지고 이 6共和國을 다시 넘기고 새로운 搜查權과 모든 行政權을 가지고 이 時局을 수습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政治的 원리로 수습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民主的 절차에 의해서 수습할 것이냐 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國民은 지금 현재 革命的 원리로 이 事態를 수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슬기롭게 앞으로 중간평가를 통해서 信任과 연계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중간평가에 모든 국민은

光州聽聞會에서 밝혀진 真相에 따라 새로운 6共和國의 탄생이라든지 5共和國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國民이 지지하지 않아야 되는 새로운 政治意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禧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尹在基委員 따라서 中間評價는 명백히 政權의 進退를 묻는 그런 評價方法을 證人은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證人 尹錫禧 바라고 있습니다.

○尹在基委員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證人 尹錫禧 당연합니다.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이제껏 光州聽聞會는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이 光州聽聞會가 과연 왜 이런 것이 발발되었는가 또 누가 이러한 光州의 피를 흘리게끔 만들었는가 얼마만큼 비참하게 피를 흘리게끔 했는가 하는 것이 證人도 많이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證人 尹錫禧 잘 알지요.

○尹在基委員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이 그동안 8年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禧 자꾸 그동안 光州에 있었던 일들이나 일련의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政府가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尹在基委員 감히 매스컴이 이러한 歷史的 眞實을 밝힐 수도 없었고 또 밝히지 못하도록 조종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國民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서 오늘과같이 이런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제 새로운 野大國會가 되어서 이런 聽聞會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이 聽聞會야 말로 國民들이 野大를 만들어 왔던 유일한 政治的 產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禧 생각합니다.

○尹在基委員 그렇다면 證人의 입장에서 마지막 光州의 補償問題 光州 사람들의 民主化運動에 있어서의 最後 精神的이나 物質的이나 기타 이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禧 먼저 이 時點에서 光州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또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解決하는 것은요 補償이 문제가 아닙니다. 補償이 문제가 아니고 真相糾明인데 현재 지금 民正黨委員들 議席을 보시면 알지만 특별히 할 일도 없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놔두고 안 나왔어요.

이것은 光州 聽聞會를 통해서 光州義學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안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그때 당시 關係者들 光州에서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關係者들이 비가 오면 진흙밭에서 눈이 오면 얼음판에서 望月洞 찾아가서 묘지를 끌어안고 백번 천번 머리숙여서 사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市民들한테 관대한 處罰을 바란다고 애걸복걸 하면 光州市民이 일부 그것도 조금 어떻게 마음이 좀 돌아설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아직 한번도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全斗煥씨나 崔圭夏씨 저 솔직히 말해서 前大統領들이지만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제가 가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렇게 聽聞會에 나와서 당당하게 뻗뻗하게 밝힐 용기도 없이 비겁하게 무슨 百潭寺나 집이나 무슨 書信으로나... 여기서 뻗뻗하게 證言도 제대로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도대체 9年 前에는 무엇을 믿고 銃을 믿고 탕크를 믿고 칼을 믿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9年 前에는 어째서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많은 市民들이 지금 聽聞會 시작하자마자 全斗煥씨 崔圭夏씨 國會證言 出席할 것을 野3黨에서도 合意해서 그렇게 新聞에다 特委만 하면 全斗煥씨 崔圭夏씨 나오라고 이렇게 빗발치는 輿論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와서 國會 門앞에 까지도 한번 안와보고 이러니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光州市民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슴에서 설움을 북받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真相糾明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물론 많은 遺家族도 있겠지만요 보상이요? 光州 뭐 돈 없어도 삽니다. 무슨 배상이니 뭐니 그런 것은 차후에 아니 차후에 안 주어도 좋아요.

안 주어도 좋은데 첫째는 가장 光州市民을 폭도라고 몰아 붙였던 그런 점들을 벗겨주고 또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그야말로 殺戮作戰을 했던 학살을 해 버렸던 이런 사람들이 光州市民은 폭도가 아니고 위대한 民主市民이었다고 밝히고 이렇게 다 해야 光州市民이 풀어집니다 지금 光州市民들은 폭도를 또 聽聞會를 통해서 모든 他地域의 사람들도 대부분 인식을 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폭도는 光州市民이 아니라 全斗煥씨 鄭鎭浩씨 朴俊炳씨 이런 一黨들이 폭도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와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짓이기고 銃으로 쏘고 이런 엄청난 상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폭도지 어찌 가만히 평온했던 光州市民들이 뭐 要求도 안 했어요. 평온했어요. 평온했던... 전부 다 잘살고 있는데 왜 와서 자국시키고 칼로 찌르고 이따위 짓거리 하나까 光州市民들 아니라 그것은 他地域에서 했어도 他地域國民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물론 野黨委員님들께서는 전부 다 해결하려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根本적으로 해결하려면 民正黨委員들이 좋은 심든 청문회에 나오고 全斗煥씨 崔圭夏씨 國會證言에 뻗뻗하게 나와서 내가 사실 그때는 욕심이 좀 많았는가 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한번 용서해 달라고 이 말 한마디만 시원하게 해버리면 저는 참말로 보상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업고 춤 추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全斗煥씨 崔圭夏씨를 國會증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尹在基委員 證人이 지금 방금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野3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拘引制나 기타 搜查權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후에 이 光州事態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制度的 장치로 特別檢事制를 지금 國會에 發議하고 있습니다. 이 特別檢事制에 대해서 盧泰愚大統領은 6·29宣言으로 스스로 民主化 大統領이라고 자칭했고 자신을 믿어 달라고

國民에게 數次 얘기했기 때문에 盧泰愚大統領은 이 特別檢査法案을 통과시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光州事態의 진상을 밝힐수 있기를 바라면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尹在基委員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 訊問하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35分이 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海瓚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證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머님들 몇 분을 모시고 소중한 證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에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陳述하시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光州의 그 아픔이 그 한이 얼마나 크게 깊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西洋의 어느 史學者는 歷史란 과거와 현재간의 대화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9年前的 歷史지만 光州는 歷史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맥박속에 펄펄 살아 있는 그런 歷史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證言 어제 證言 約 30餘분에 걸친 30분의 證言을 꼭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約 100年前에 東學亂이 낫을적에 東學亂이라고 規定을 하면서 못된 農民들이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規定을 해서 처형을 하고 그렸습니다. 그 東學亂이 10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甲午東學農民革命 甲午東學農民戰爭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歷史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韓國史에 있어서의 부패한 봉건사회를 두들겨 부수고 새로운 歷史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했던 農民들의 투쟁이었다. 아니면 그 부패한 三政이 문란해서 官吏들이 버라벌 부패한 짓을 다 하던 그 官吏들을 매수해서 日帝가 이 韓半島를 併合하려고 할 적에 그 日帝에 저항해서 싸운 農民들의 그 竹槍 그 싸움을 가리켜서 이제는 위대한 革命으로 위대한 戰爭으로 명명을 歷史學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東學亂의 명예가 회복되는데 約 100年の 歷史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1980年 남도땅 光州에서 있었던 폭

도들이 이제 9年만에 바로 이 자리에 民主化運動을 실천했던 證人으로서 證言하시는 歷史의 전환을 보고서 저는 새삼스럽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社會는 民主化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民主化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갖은 농간을 부리고 언동을 하고 왜방을 놓고 고문을 가하고 매도를 하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하게 당했던 光州의 학살을 딛고 우리 國民은 9年만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證言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 國民이 지난 9年동안 싸워서 딛고 일어난 어떻게 보면 民主化運動의 거름위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崔圭夏나 全斗煥이나 이런 두 前大統領을 이 자리에 證人으로 갖다 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과 不遠之間에 여기 다 갖다 세울 겁니다. 제가 바로 8年前에 여러분들이 당했던 바로 그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저는 서울에서 바로 그 軍人들한테 처참한 고문을 당하면서 懲役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最後陳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軍部數判에 의해서 裁判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면은 반드시 당신들을 잡아서 내 자리하고 바꾸어서 내가 審判을 할 것이다” 그 당시에 裁判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光州聽聞會에 대체적으로 證人들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자리가 裁判은 아닙니다마는 그 證人들을 제가 訊問을 하면서 人間的으로는 참 안되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地位는 그렇게 소중한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光州에서 發砲를 명령을 했다 아니면 光州에서 누구를 썰러 죽이라고 했다.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名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地位가 그렇게 소중한게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과 地位를 소중한게 여기는 사람들이 光州에서는 數千名의 市民들을 그렇게 사살할 수 있겠는가?

(金仁坤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참 人間的 兩面性을

함께 느낍니다.

訊問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金泰贊證人께 묻기 전에 아까 李載春證人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內亂을 뭘지 모르고 內亂으로 起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內亂으로 起訴된 公訴狀을 제가 보고서 辯護士를 選任할 수 없어서 제가 刑法總論이란 책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지난번 聽聞會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던 방 옆방에는 도둑놈 강도 강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도를 하려다가 실패하면 未遂犯이라고 해가지고 3年 징역줄 것 2年정도 줍니다. 절도에 성공하면 절도범으로 해서 그것은 3年징역을 받읍니다. 그런데 內亂犯들은 실패하면 지금 李證人처럼 10年 20年 이렇게 받읍니다. 성공한 全斗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징역을 안 받읍니다. 그 法을 執行하기 때문에 징역을 안 받는다고 法 책에 써놓은 것을 보고 아하! 그 內亂이라는 것이 이기면 징역을 안받고 지면은 징역을 받는 참 묘한 法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징역을 받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 光州의 아픔을 딛고 그 고통을 딛고 그 사람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면 다시 內亂罪로 징역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단계에 온 겁니다. 內亂을 모르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民主化의 歷史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金泰贊證人께 말씀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證人 金泰贊 滿 스물여덟입니다.

○李海瓚委員 스물여덟이신가요? 지금은 職業은 무엇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證人 金泰贊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건강이 안좋으신가요?

○證人 金泰贊 건강도 안좋고 그리고 제가 80年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職場다운 職場을 제대로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李海瓚委員 주변에서 안받아줘서 그런가요?

○證人 金泰贊 항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

리고 5월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꼬리표가 누구냐하면 對共課刑事 아니면 情報課刑事 이 꼬리표들이 언제나 달고 다니면서 배방을 놓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은요 처음에 그 당시에 職業은 어느 職場에 종사하셨습니까?

○證人 金泰贊 형이 하고 있는 事業인데요 石工입니다.

○李海瓚委員 石工일을 하셨습니까?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때 열하흠살이나 스무살쯤 되셨었는대요?

○證人 金泰贊 滿 열하흠살입니다.

○李海瓚委員 石工일을 하시던 분이 光州抗爭에 참여하게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證人 金泰贊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大學校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도 좀 느끼고 그리고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은 즈그 아버지 엄마들이 진짜 세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아니면 꿈꾸리 팔아서 大學을 보내주니까 밥 먹고 할짓이 없으니까 「데모」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야만 했느냐 하면 내가 우선 밥먹고 살기가 팍팍하거든요. 그런데 民主主義니 民主化란 얘기를 우리들은... 그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80年5月18日 서방삼거리에서 선배 한분이 칼에 맞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서방삼거리에 군인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야 저놈들이 나를 찔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5月18日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때는 이미 光州市內의 市內버스에 젊은 사람들은 市民버스를 타지 말라고 그랬읍니다. 市內버스를 탔다가는 市內에 나가 버리면 空輜部隊들이 올라와서 젊은 사람만 있으면 잡아끌어다가 두들기고 때고 짓이기고 그런 일이 非-非再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그 先輩분이 칼에 찔린 것을 보고 軍人들이 市民들을 그렇게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두들기거나 하는 그런 데에 격분하셔서 示威에 참여하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瓚委員 그 다음에 證人께서는 機動打擊

隊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機動打撃隊 活動을 하시면서 5月27日은 마지막까지 道廳에 계셨습니까?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瓚委員 道廳 어디에 마지막에 계셨습니까?

○證人 金泰贊 道廳 2層 農水産部 地方長官室이겠지요.

○李海瓚委員 道廳 2層에 있었습니까?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瓚委員 그러면 道廳 2層에 마지막까지 계셨으면 道廳 地下室에는 「다이나마이트」가 많이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그 雷管이 제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證人 金泰贊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니다.

○李海瓚委員 「다이나마이트」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證人 金泰贊 「다이나마이트」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제가 5月기간중에 돌아다니면서 「다이나마이트」가 雷管과 먹이 이렇게 맞물려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보았습니다.

○李海瓚委員 예. 됐습니다.

그 2층에 계시던 방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계셨습니까?

○證人 金泰贊 우리 組員이 7名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一般市民軍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종기辯護士님이 같이 계셨어요.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 방에 전부해서 10명이 좀 넘었습니까?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瓚委員 그 방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證人 金泰贊 그 방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복도에 나와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서로 신분을 모릅니다. 신분도 모르고 하니 까 나이가 엇비슷하면 서로 “하소”를 하는데 제옆에서... 제 銃이 칼빈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칼빈총이 자동이있고 반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반자동으로 놓고 銃을 당겼는데 銃이 안나가요. 안나가니까 “어이 이 銃좀 봐 주소”하고 건네주어가지고 그 銃을 고쳐서 고쳐서 나한테 주었는데 금방 이 친구가 창

문이 있다면 창문에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 고개내미는 사이에 戒嚴軍들이 여기를 썩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바로 옆에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쓰러지면서 특 떨어져요. 특 떨어지면서 피가 쏟아졌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피가 제 바지를 적셨을때 요즘에 흔히 越南戰이나 아니면 映畫를 봤을때 戰友愛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戰友愛라는 것이 아! 나는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저놈들이 진짜로 내 同志를 죽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農水産部長官室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종기辯護士님이 銃을 빼앗았습니다. 자네들은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 곳에 나오라고 이종기辯護士님이 銃을 빼앗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 5月이라는 망령은 정말 나에게서 무겁고 힘들고 벅찬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2層에 군인들이 올라와서 항복을 하고 끌려나왔습니까?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瓚委員 끌려나와가지고 바로 상무대 營倉으로 갔습니까?

○證人 金泰贊 제일 처음에는 戰敎司 練兵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4時까지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만 들었다 하면 5「파운드」짜리 폭평이가 위로 날라다니면서 무조건 칩니다. 그리고 날라치기 아니면 옆발차기 태권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군인 아저씨 중에 많이 있대요.

○李海瓚委員 道廳에서 끌려나올 때에 시체를 몇 개정도 보았습니까? 직접 보신 것만 말씀해 보세요.

○證人 金泰贊 제가 새벽에 2層에서 잡힐때가 黎明이 막 터울 때니까 5時半이나 아니면 5時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구두끈을 풀어가지고 뒤로 손을 팽팡 묶어가지고 복도에다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戒嚴軍들이 쫓아옵니다. 戒嚴軍들이 그 위를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負傷者고 重傷者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묶어놓고 그 위를 뛰어다니면서 총소리가 나는 데는 무조건 총을 갈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끌려 나왔을 때 바닥에 그

러니까 2層 난간부터 시작해서 복도 거기에 지금 推定하기에 3·40名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李海瓊委員 시체만 본 것이 3·40具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證人 金泰贊 예.

○李海瓊委員 그래가지고 27日 道廳鎮壓할 때를 가리켜서 지난번에 나왔던 蘇俊烈證人은 民和委에서 證言을 하면서 그것은 아주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軍生活을 하면서 자기가 커다란 작품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꺾꺾거리고 웃고 하는 것을 세가 녹음「테이프」로 직접 들었습니다.

바로 그 蘇俊烈證人이 在郷軍人會會長으로 있는데 그 蘇俊烈證人이 있는 在郷軍人會에서 MBC에서 어머니의노래를 재방송할 때에 그것을 못 하도록 하려고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蘇俊烈證人은 그 진압의 최고 책임자 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空輸部隊를 시켜서 자기 농장을 만드는 그런 파렴치하고 不法의인 행위를 한 것이 本 聽聞會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전혀 法律的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것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이 어머니의노래를 방영하는 MBC에 가서 그것을 못하도록 항의하고 협박하는 그런 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光州聽聞會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殺傷을 한 사실에 대해서 加害者들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證人이 보시다시피 이 옆자리가 전부 民正黨자리인데 저는 처음에는 바로 5月27日 새벽에 동이 터 오면서 진압을 당했고 거기서 많은 여러분들의 同僚나 同志들이 죽거나 다쳐거나 붙잡혀 갔는데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많은 加害者들이라든가 民正黨委員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단 도망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듭니다.

왜 그러나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진실이 밝혀지는 모든 절차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聽聞會를 거부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조차도 뒤엎으려고 하는 企圖를 많이 하리라는 것인데 근자에 들어서 國民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도 바로 그런점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第5共和國과 단절을 하고 光州의 진상을 규명해서 새로운 第6共和國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추고 호도하고 은폐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만 자기들쪽으로 유리한 상황이 오면 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事態性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80年の 光州의 처참한 참극을 겪고 나서 9年の 역사가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쿠데타」가 한번 더 일어나면 光州와 같은 그런 참극을 全國的으로 겪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봉착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國民들이 民主化를 너무나 열렬히 열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光州에서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軍部가 「쿠데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光州의 참극이 釜山에서 大邱에서 서울에서 동시에 여러군데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우리사회는 지금 民主化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加害者들이 반성은 커녕 여러 가지 호도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聽聞會를 하면서도 늘 그런 걱정을 한편으로 머리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證人에게 다시 한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鄭鎬容證人은 지난 聽聞會에 나와서 가발을 가지러 保安司에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부를 가지러 保安司에 갔었다 그러니까 空輸部隊服裝을 입고 작전을 하면 光州市民들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가발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部隊로 변장하는 그런 옷을 가져다가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證人은 軍人들이 가발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泰贊 가발이 아니라 하얀 끈을 이렇게 맨 것을 鄭鎬溶證人이 가발로 오인했지요.

○李海瓊委員 鄭鎬溶證人は 분명히 가발을 구하기 위해서 保安司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證人 金泰贊 가발같은 것은 전혀 안 보였고 가발이 아니라 하얀 끈을 가지고 가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리고 空輸部隊 特攻組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복장은 20師團服裝이었습니까?

○證人 金泰贊 예. 20師團服裝이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래서 國防部資料에 보면 20師團이 죽인 市民들 數字하고 3空輸部隊特攻組가 죽인 數字가 다르고 서로간에 자기는 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空輸는 자기는 4名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師團資料에 보면 자기도 4名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證人의 정확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죽은 사람은 27日 道廳狀況에서만 적어도 몇 십명이상. 많을 경우에는 몇 백명까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에 암장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鄭鎬溶證人は 어떻게 證人席에서 對答을 했느냐 하면 大韓民國軍人이 어떻게 國民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난 번에 證言을 했습니다.

우리가 光州聽聞會過程에서 보면 松岩洞에서 良民이 엄청나게 학살된 사실이 어제 證言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주남마을에서도 그렇게 良民이 학살된 것이 또 얼마 전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상황중에 하나인 道廳에서의 사망자 이 숫자를 저희가 지금 밝힐 길이 없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資料上으로도 만나오고 어둠 속에서 치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본 證人도 많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전날부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낯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道

廳을 방위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道廳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김태찬 證人 잠깐 기다리시고 박남선 證人께서는 狀況室長을 보셨기 때문에 그 道廳에 마지막 침공에 있었던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를 가장 줄여서 평가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證人 朴南宣 그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숫자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당시에 기동타격대원이 8個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40名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月 26日 밤에 戒嚴軍이 다시 光州를 재침공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YWCA에 約 100餘名の 豫備軍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지휘관인 전직 예비역장교는 戰敎司 軍法會議에서 刑을 宣告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0餘名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40餘名이 됩니다. 140餘명에다가 원래 道廳에 있던 경비를 맡고 있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 병력이 약 200名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幹部들을 비롯해서 道廳 2層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여자분들 학생들 이래가지고 道廳에 있던 사람들이 道廳 內部에 그날 저녁에 있던 사람들을 저는 한 400名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光州 公園에 무장을 갖춘 별개의 部隊가 있었습니다. 그때 7空輸師團의 전투상보를 보면 光州公園에서 교전이 치열했다는 그 상황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당시의 무장을 하고 제엄군의 光州 再進攻을 저지하려던 인원은 약 5·600名이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예. 지금 상황실을 맡았던 박남선 證人께서는 약 5,000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준열 證人의 지난번 證言을 들어보면 약 300에서 350名 정도라고 證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軍關係 資料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연행자가 체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포자가 200名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軍關係 資料 중에서 사망자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얼마 전에 報道가

되었던 20師團의 「차아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39가 있는 「차아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준열 證人의 證言에 따라서 300내지 350名이라고 하더라도 이 230名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남선 證人의 證言에 따르면 그 숫자보다 約 150내지 200名이 더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약 10日間에 걸친 光州抗爭의 사상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밝히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숫자를 밝혀내는 것이 아마 光州特委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혹시 김태찬 證人께서 그날 쪽 제쳤기 때문에 들은 얘기는 배고 직접 목격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泰贊 27日事件을 말씀하십니까?

○李海瓚委員 예. 27日 새벽 진압상황...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시체라든가 죽은 사람들에 관련해서 보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證人 金泰贊 제가 26日 제림國民學校로 豫備軍兵力을 30名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왔던 사람이 불과 몇 사람이 안됩니다. 光州 가까이 있는 이충용 동지하고 몇몇 안되고 제림國民學校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道廳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27日事件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전에 상무관으로 간 시체 말고도 시체실로 즉 확인되지 않는 시체는 다시 시체실로 道警察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시체도 어느 곳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27日로 다시 돌아온다면 27日 事件 중에 바로 내 앞에서 쓰러졌던 동지 그리고 가장 나이 어렸던 우리 기동타격대 7組 組員 중에서 한 명인 김영남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당년 16歲입니다.

16歲인데 戒嚴軍들이 2層에 올라와서 農林水産部長官室을 열고 손들고 나와 하니까 영남이 애가 손 들고 나왔습니다 손 들고 나왔는데 銃을 쏘버렸어요. 이 총알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빗나가버렸어요 만약에

이 손만 아니었다면 김영남 그 동지도 죽었고 또 하나는 그 총소리가 나니까 또 한 명 김규광이라는 우리 組員이거든요 그 組員은 손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총소리가 나니까 반대편에서 총을 쏘가지고 이 구멍을 또 뚫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과정속에서 道廳에서 그렇게해 가지고 실지 27日 事件은 굉장히 어두웠고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만한 것은 이미 戒嚴軍들한테 20師團의 兵力 중에 들어왔던 兵力들을 보면 M16 위에 망원경이 달려있습니다. 망원경이 달려가지고 그것으로 조준해 가지고 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것이 제 눈에 분명히 보였고 그 현장에도 있었읍니다.

○李海瓚委員 됐읍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가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져야만이 光州에 있어서의 死亡者의 문제가 훨씬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光州에서 교도소라든가 道廳 앞이라든가 YWCA 앞이라든가 이런 다른데서 死傷 당한 것에 대한 것은 많은 자료나 정황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되는 부분이 바로 道廳狀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月21日 발포 때도 證人은 참가를 하셨는데 발포명령에 관련해서도 내일 證人들이 證言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더 충분히 우리가 밝혀져야만이 光州의 진실에 훨씬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말로써 鄭鎬溶證人은 지난 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證言에서가 아니고 長官으로 있을 적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朴鍾哲 拷問致死로 죽었을 적에 內務長官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朴鍾哲군이 拷問으로 죽고 그 加害者들이 지금 懲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 라고 뻔뻔스러운 말로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덮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鄭鎬裕證人이 이 證言席에 나와서 군인이 어떻게 國民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常識的으로 있을 수 없는 말로 光州 전체 사실을 隱蔽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企圖였지만 여러분들의 증언이라든지 어제 있었던 어머님들의 證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光州의 사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밝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또 證言이 있고 이후에 小委活動을 통해서 더 진실에 접근해서 光州의 진실을 밝혀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泰贊證人께서 本 特委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金泰贊 일단 여러 委員님들한테 감사사를 드립니다.

진짜 80年5월에 무참하게 아니 그것도 무참하다는 얘기가 語法으로서 맞지 않겠지만 진짜 처참하다 못해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9年동안 은폐되어 왔었습니다.

정말 人間이 人間으로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느끼고 人間の 살상 그리고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몇몇 政權에 미쳐 날뛰는 新軍部勢力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法治國家라고 全斗煥씨나 아니면 內務部長官 아니면 이번에 담화문을 발표했던 李漢東씨나 다 얘기를 합니다. 이 法治國家에서 정말 이 法治國家 속에서 그러한 살인자 한남도 아닌 數名을 죽이고도 百潭寺 아니 이 政權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꼭 잡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全斗煥씨를 정말로 人間的으로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盧泰愚씨를 人間的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 성경말씀에 罪는 미워도 人間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人間 그 자체를 미워한다면 우리 民族 우리 同胞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쓰러져 가고 또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또 밟게 됩니다. 정말 罪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罪過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해 주기위해서 이 特委 證人座席에 全斗煥씨 그리고 盧泰愚씨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光州虐殺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끌려나와서 얘기를 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는 넓은 아량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곳에 와서 光州사람들은 한풀이 하기위해서 정말 이 光州聽聞會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풀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 시대에서 우리들 世代에서 정말 이런 뼈아픈 고통을 다음代 내 자식들에게만은 물려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聽聞會委員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聽聞會에 이것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光州의 진실 그리고 光州市民들이 무엇을 원했던 가에 대해서 파헤쳐 주시기를 정말로 두손모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金泰贊證人 李海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證言은 이것으로써 끝납니다. 끝나는 마당에 銃을 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젊은동지들이 피를 쏟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生命이 소중한 것을 절감해서 호소하는 젊은동지들이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을 말하고 용서 받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느낍니다. 어저께 요청한 대로 우리 어저께 된 會議錄을 民正黨 議員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호소가 지금은 그들의 손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證人들이 호소하는 호소도 그럴 것입니다. 극히 적은 生命도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내일이라도 모두 마음을 바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證言해야 할 사람들은 證言하고 겸허하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訊問해야 할 사람들은 저 빈자리를 다채워서 우리의 이 訊問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韓國사람은 한사람도 매놓지 않고 동족의 生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루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12分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金 泳 鎮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尹 在 基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議員

朴 錫 武	慎 順 範	梁 性 佑
李 永 權	李 載 根	鄭 祥 容
鄭 雄	金 炳 龍	尹 星 漢
李 煥 逸	李 哲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카톨릭센터상환 관련 證人(합석증언)

- 1) 신경진 : '80.5.19. 카톨릭센터에서 제업군의 총검진압으로 부상
- 2) 이광영 : 당시 스님으로서 카톨릭센터에서 5.19 상황 목격, 5.21 구시청에서 부상
- 3) 박병을 : 당시 2회의 부상을 당한 자로서 카톨릭센터에서 5.18진압봉 구타에 의해 부상

○시민학생수습위원회 관련 證人(합석증언)

- 1) 송기숙 : 당시교수
- 2) 조비오 : 당시신부
- 3) 명노근 : 당시교수
- 4) 윤영규 : 당시교사

○도청항쟁지도부 및 기동타격대 관련증인(합석증언)

- 1) 박남선 : 도청항쟁지도부
- 2) 박효선 : 도청항쟁지도부
- 3) 이재춘 : 기동타격대
- 4) 김태찬 : 기동타격대
- 5) 윤석루 : 기동타격대